

'5월 정신' 통일 디딤돌로... 활발한 대북지원

〈목차〉

- 제1부 되짚어 본 5·18
-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노월을 넘어 광복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①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5·18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 불의에 대한 항쟁, 나눔과 평등, 평화통일의 지향으로 요약된다. 30년을 맞은 5·18은 민주화운동으로서 어느덧 역사가 됐지만 그 정신은 현재까지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5·18의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사람과 단체, 해외에서 5·18을 전파하는 외국인들, 유공자라는 보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날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北어린이 돕기·쌀 보내기... 대중 평화통일 운동 병행 남북 민간교류 가교 역할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사장 윤장현)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민족 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단체이다. 지난 2000년 창립 후, 북녘 어린이 교육지원을 위한 헌 교과서 모으기 운동, 대북보건의료 지원, 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동아시아 통계연감에 의하면 남북 청소년의 키 차이가 15cm에 이른다. 북한 청소년의 40%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향후 남북이 통합되었을 때 단순히 보이는 신체적 차이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통해 북한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이 버려지는 교과서 등 폐지를 모아 기금을 만들어 매년 북한 함경북도 은성군 1천300여명의 어린이(3~7세)를 위해 식량, 교육기자재, 선물, 옷, 신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운동을 통해 이 지역 초·중·고교에서 헌 교과서를 모아 4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북한어린이들에게 지원해왔다.

이처럼 이 단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생활 속에서 직접 통일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평양 남새 온실 준공 ▲경남 청산리 주민 편의시설 ▲대북보건의료 연대협력 사업 ▲울진역 폭발사고, 북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로 대표되는 '5월정신'을 통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헌 책을 모으고 있는 모습.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공>

한 수해동포 돕기 등 남북 간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좌담회, 광주지역 대학생 통일 연수, 북한 개발협력 아카데미 등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중 평화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5월정신을 통일운동으로 확산하자는 논의는 지난 2006년 5·18 제26주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을 '오월에서 통일로...'라고 결정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참여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월 광주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대북 정책이 변할 때마다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는 축소되고, 덩달아 민간 교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민간단체나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한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액은 지난 2007년 367억원에서 2008년 262억원, 2009년 10월 현재 57억원으로 급감했다.

지역역이 줄자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식량 지원은 목표 대상의 39%에 그쳤고, 어린이 설사치료제는 1년 총 필요량의 절반만 공급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하지만,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관련 지원 단체들은 '아직 아무것도 퍼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김영삼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대북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민족인 북한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돕는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이 평화공존체를 이룬다면 5·18민중항쟁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 대동세상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른살의 5·18에게

박만규

"김밥·피 나누고 생명까지 함께한 그날의 사랑, 일상속에 꽃 피우자"

잘 알듯이 '5·18 민중항쟁'의 직접적 인 계기는 신군부의 계엄확대 조치였다. 유신체제의 몸통이던 박정희가 피살된 후 12·12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민주회복을 갈망하던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군부 집권을 연장하려 했던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민주화 열망이 계엄확대 조치로 얼어붙었지만 광주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앞장섰고, 이어 시민들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었다.

열흘간의 피의 항쟁은 비록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은 이후 5공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고,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군부독재가 항복하기까지 전국민의 민주화운동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5·18은 한국민주주의 실현의 최후 결말이었던 군부정권과 정면으로 대결해 마침내 그것을 굴복시키게 했던 뜻깊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그 직접적 계기와 당대의 목적만으로도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시 사건에 직접 참여했던 주체들마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의미까지를 내포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새로운 의미를 과잉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5·18 역시 민주화운동이라는 하나의 정치사회적 개념으로만 규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동안 우리는 5·18의 의미와 관련해서 한때는 자주와 통일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고, 지금은 민주와 더불어 인권과 평화라는 개념을 써서 그 의미를 살려내려 하고 있다.

어느덧 5·18도 한세대가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지정의 민주화운동 기념일로서 5·18을 기릴 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과 관련해 모두의 가슴 속에 새롭게 살아 움직일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당



시 광주시민들이 보여주었던 헌신과 사랑의 '5월 정신'에 주목하게 된다.

80년 광주는 완전히 고립된 채 극도의 공포가 지배하던 곳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치안이 마비되고 일반 민간인들에게 수천 점의 총기가 주어진 속에서도 나란의 안전이나 목전의 이익을 피하려는 이기심은 단 한건도 발동되지 않았다. 오히려 높은 도덕성을 발현하면서 견고한 시민공동체를 이루어 모두 함께 김밥과 현혈을 나누고 생명까지도 함께 하고자 했던 성스러운 공간이 연출됐다.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야말로 5·18을 단지 우리의 민주화 실현에 기여한 하나의 정치사회적 사건이라는 함의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근본 가치이다.

그 같은 고결한 정신이 바탕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 5·18은 불의와 공포에 맞선 인간이 그 잠재력과 위대함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도 빛나는 사건으로 승화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공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광주 시민공동체가 80년 당시에 같은 비상 상황에서 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드높은 도덕성을 발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전남대 5·18연구소장>

영 / 학 / 안 / 내

영화는 세상을 바꾼다

메가박스

1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세)	최고급관
2관	의형제 (15세)	
3관	하모니 (12세)	
4관	울프맨 (18세)	
5관	(3D)아바타(12세)	
6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전세)	
7관	발렌타인데이 (15세)	
8관	하치이 이야기 (전세)	
9관	의형제 (15세)	
10관	평행이론 (15세)	

• 호날두차단형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 연변약국사거리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발렌타인데이 (15세) /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전세)	
2관	하치이 이야기 (전세)	
3관	의형제 (15세)	
4관	의형제 (15세)	
5관	위 핏 (12세)	
6관	평행이론 (15세)	
7관	울프맨 (18세) /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세)	
8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세)	
9관	하모니 (12세)	
10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세)	

필름사관 영화시청 •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상무동점과 이마트 사이) • 여남점 (무역화면점)



1588-7941 상담형영점 행복-(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전세)	
2관	하치이 이야기 (전세)	
3관	울프맨 (18세)	
4관	발렌타인데이 (15세)	
5관	위 핏 (12세)	
6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세)	
7관	하모니 (12세)	
8관	의형제 (15세)	
9관	아바타 (12세)	
10관	의형제 (15세)	

• 5000대 넘은 주차장(이마트부근) • 3층 데일 심야
• 이틀 통신판매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스포츠점 281-5757 • 하이 병점점 282-0825
• 하이 스포츠점 281-5060 • 하이 병점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센터 • www.hamichema.co.kr / 1588-9120
전대무선 하미스포박스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전우치 (12세) / 의형제 (15세)	
2관	울프맨 (18세)	
3관	하모니 (12세)	
4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세) / 아바타 (12세)	
5관	아바타 (12세) / 발렌타인데이 (15세)	
6관	의형제 (15세)	
7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의형제 (15세)	
2관	아바타 (12세)	
3관	공자 - 춘추전국시대 (12세)	
4관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12세)	
5관	울프맨 (18세)	
6관	발렌타인데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세무소 옆 호남대입구점)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세무소 기점 • www.primuschema.com / www.jellocinema.co.kr •
홍성로 3기 ARS 전화예매 ☎227-1960